

## ■ 센터 소장 인사말

### 2019년, 하나님 안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이루길 기도합니다.

2018년은 한반도 역사 상 아주 특별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 70여 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한반도의 정세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였을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 속에 있지만, 적어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공감을 나누는 2018년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한 해가 바로 한반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무수하고 거대하고 하나님의 톱니바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임을 신앙적으로 돌아봅니다. 인간은 자기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들 생각하지만,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인식하는 신앙인의 역할이 역사 속에서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일보건의료센터도 통일을 향하여 매우 숨 가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매 월 1회), DMZ 및 판문점 방문(9월), 제 4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11월), 통일 관련 영화 기획전 (12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대와 간호대에서는 <통일과 의료>, <통일과 간호> 교과목 운영과 그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의, 치, 간, 약학 교수님들이 다수 참여하여 집필하신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2018, 박영사)가 출간되어, 전국적으로 통일 보건의료 관련 대표 교과서 및 전문서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펼쳐질 2019년의 연세의료원 통일 활동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2019년,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선교 기관, 서양 의료기관,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연세의료원이 그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한과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으로 펼쳐졌던 연세의료원의 사명이, 북한 지역과 그 곳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까지 펼쳐지기 바랍니다. 조용하고도 신중히, 그리고 겸손하고도 열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통일보건의료센터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연세의료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 신임운영위원 - 최원규 선교사

몽골에서 10여 년 간 의료선교를 몸소 실천해 온 세브란스의 자랑스러운 선교사가 있다. 몽골에서 세브란스의 정신을 펼치던 그가 2018년 귀국하여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더불어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제 3국에서 의료선교를 행하셨던 최원규 선교사에게 북한, 그리고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 1. 어떻게 북한,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몽골에 있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몽골은 192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부터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한 국가예요. 70년 간의 공산주의 경험 이후 지난 20년 간 몽골의 변화의 시기를 함께 겪었어요. 북한의 변화를 미리 보는 듯해서 관심이 갔어요.



특히 몽골은 제 1 수교 국가가 러시아, 제 2 수교 국가가 중국, 제 3 수교 국가가 북한이라 몽골 사람들은 비자 없이 북한에 한 달 간 방문이 가능해요. 그 만큼 북한과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서 북한에 갖게 되는 당연한 관심 외에도 이런 특성을 지닌 몽골이라는 나라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더욱 더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 2. 몽골과 북한은 친선국가라고 하셨는데, 북한 사람을 직접 진료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몽골에는 북한 사람들이 노동근로자로 2000명 이상 체류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의 경우 봉제일을 하고 남자는 건축현장에서 일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몽골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연세친선병원이나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북한 분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어요. 주로 호흡기, 소화기의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왔던 것으로 기억돼요. 하지만 북한근로자들이 혼자 오는 것은 아니었기에 치료 이외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그 분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 신임운영위원 - 최원규 선교사

### 3. 통일보건의료나 북한에 관련한 기대하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전우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공동체에 대해 깊이 공감해요. "통일"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필수 과정이에요. 교회나 깨어있는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의 소통과 관계 회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이루어 내리라 기대해요.

### 4. 통일보건의료센터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셨는데 세미나에 대한 향후 제안이 있으신가요?

지난 해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들이 모두 유익했어요. 특히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의 시작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취지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고 상처와 아픔에 공감했어요. 이 영화 하나가 계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무리로 시작해서 하나의 운동 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기회였어요.

센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여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먼저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요. 남북이 각 분야에서 교류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늘어나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한반도 지역을 초월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

##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보건의료 협력”

지난 11월 8일 목요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의료원의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교직원들과 의대, 치대, 간호대, 약학대 그리고 보건대학원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약학대학 정진현 교수의 사회로 막을 올린 세브란스 통일의 밤은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통일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소개, 발제 및 질의응답으로 꾸며졌다.

이 날 발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협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남북 보건의료협력추진단 건강안전망 구축 추진 단장)과 김진숙 팀장(남북협력TF)이 맡았다. 발제 시간 이후에는 남북보건의료협력에 대해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보건복지부에 의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부터 북한 보건의료 실태, 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 미래 보건의료인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배움 소개

통일의 밤 2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순서로 준비되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들이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지난 한 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공유하는 자리이다.

발표는 각 단과대학 학생기획단 SUM 소속의 학생들이 맡았다.



통일보건의료센터 학생기획단 <SUM> 학생들

첫 발표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제작한 UCC로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설된 간호대학의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점과 생각한 것들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또 의과대학은 2018년 3분기에 개설된 <통일과 의료> 선택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했다. 치과대학의 경우 최근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질병퇴치 문제와 북한의료행정체계 실태에 대해 연구해본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약학대학에서는 북한 제약산업의 현황에 대해 연구해본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품추첨순서에서는 의/치/간/약학대학 및 보건대학원,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협찬 받은 고가의 선물들이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관람 및 추상미 감독과의 대화

2018 북한 관련 영화 기획전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상영 및 추상미 감독과의 대화

“연세의료원 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2018.11.26 Mon. 7p.m.  
필름포럼 (이대후문)

**영화 소개**  
감독 - 추상미  
장르 -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1951년 8월25일 2차 1,500명의 어린이가 폴란드로 보내졌다. 그들은 선한배를 믿고 폴란드로 넘어왔을 때에도 폴란드 아이들은 선한배를 찾아, 폴란드와 V자 새우 가족으로 합류하였다. 그러나 8년 후 아이들은 갑작스런 송환 명령을 받게 되었다. 2018년, 아이들의 생모가 할 수 없는 저절까지 폴란드 선생님들의 마음을 그려내려 노력 중이다. 우리 속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가슴에 닿아야 할 시간의 흔적을 통해 추상미 감독과 함께 우리, 우리 모두 아이가 보내지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19:00 ~ 20:20	영화 상영
20:20 ~ 20:25	Break Time
20:25 ~ 21:30	추상미 감독과의 대화

※ 영화관 내 음성을 방출 불기하여 사시/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가 신청**  
• uni-health@yuhs.ac.kr  
• 당일 소식이 변경되면 반드시 문자로 확인  
•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신청은 접수순이며, 이메일로 참가신청 하시면 가능여부를 확인드립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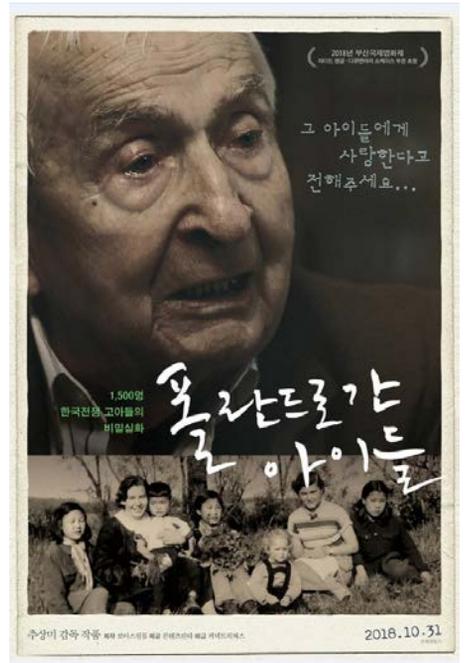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1500명이 김일성의 지시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폴란드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8년 후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아이들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조용하게 벌어진 이 슬픈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우리 앞에 늘어 놓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감상하고 감독인 추상미 감독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마련했다.

11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연세의료원 교직원과 학생 약 110여 명이 필름포럼을 찾았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과거 아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참석한 것이다.

줄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김일성의 지시 하에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한국전쟁 고아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폴란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이자 출연자인 추상미 감독과 탈북소녀 이 송이 과거의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담았다.

1시간 20분의 러닝타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추상미 감독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다른 관객들과 소감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이어졌다.



##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소개



###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계기

<그루터기>라는 북한전쟁 고아를 주제로 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영화보다 먼저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인지, 또 북한 전쟁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추상미 감독은 북한 꽃제비 영상을 보고 '저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북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북한 전쟁고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루터기들>이라는 극영화로 준비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폴란드로 갔다가 이제 90세가 넘는 당시 폴란드 선생님들의 증언과 모습을 보고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겠다는 생각이 영화 제작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추 감독의 영화 속에는 전쟁으로 상처 입고 먼 이국으로 갑자기 보내져 또 한 번 상처 입은 아이들의 아픔이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전쟁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있다. 서로를 통한 상처의 치유로서의 역사를 알게 되며 탈북 소녀 이송과 추상미 감독 또한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마주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의미가 더욱 뜻 깊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추상미 감독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심혜영 성결대 교수의 생각과 의견 공유가 더해져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 층 풍부한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제 36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 구금시설과 고문 실태 그리고 과제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일시 : 2018년 12월 18일(목) 오후 6시

□ 장소 : 의과대학 의대회의실

□ 요약 : 11만 건의 데이터와 20여 년 간의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 구금시설과 고문현장의 실태 그리고 우리의 미래 과제에 대해 강의함



연자 소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경력

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문위원

현)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전공 교수

전) 북한대학원 겸임교수

전)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비지팅 스칼라



강연 요약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인권침해 현실 파악

인물 파일 4만 여 건, 사건 파일 7만여 건으로 총 11만여 건의 파일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이들 파일은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나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의 경험 혹은 목격한 것들을 기록한 파일들이다. 서독 법무부가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한 4만 3000여 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의 기록이다. 불법체포, 구금, 고문으로 인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침해는 전국에 촘촘히 들어서 있는 700여 개의 모든 구금시설에서 일어난다.

고문당해도 본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북한 현실

갓가지 잔인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가 자유를 억압당하는 현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주민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문을 당한 사람도, 가하는 사람도 그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의식이 없다.

**인권분야에서도 남북의 기술협력 필요** 통일이 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의식차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한 구금시설을 국제표준에 맞추는 지원을 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통일보건의료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의 2019년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활기찬 새해의 기운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지난 10월4일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활성화의 기대가 높은 분위기 속에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학회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고 23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2018-2019에 발표된 국내외 통일보건의료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통일관련 최신연구동향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남북보건의료재단 연구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